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략시장정책과 김영환 과장(2110-4632), 김두열 사무관(2110-4638)

인도 전력인프라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

- 인도정부 인도 발전용량 확대에 전력(全力), 5년간 2,500억불 투자
- 지경부, KOTRA와 공동으로 "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" 개최, 전력분야 진출방안 제시

□ 지식경제부는 KOTRA와 공동으로 2012년 2월 3일(금) 13:30 서울 신라호텔에서 **「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」을 개최**하였음

○ 동 행사에는 인도 송전·배전 기자재 분야의 대표 발주처인 인도화력발전공사(NPTC), 인도송전공사(PowerGrid), 인도기자재조달공사(BHEL) 등이 참여하여,

- 인도 전력시장에 관심을 갖는 200여명의 국내기업 참가자들에게 인도 전력분야의 구체적인 시장현황 및 진출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

○ 이날 발주처 관계자로 참석한 인도 BHEL의 프라카쉬 찬드(Mr. Prakash Chand) 부장은

- "전력분야의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한국소싱을 늘릴 계획이며, 최근 높은 기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희망"한다면서 한국과의 전력분야 협력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

○ 최근 인도정부는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전력인프라 분야의 발전용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설비 확충, 전력현대화사업, 대규모 원전건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

- 특히,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(2012~2017)중에는 현재 발전설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03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, 동 기간중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

* 인도 전력부족율(2011) : 평시 10.3%, 피크타임 12.9%
* 인도 12차 계획기간 전력 투자금액 : **2,520억불**(발전 1,150, 송전분야 470, 배전 900)

○ 한편, 이날 행사에서 지식경제부 김창규 전략시장협력관은

- 우리기업의 기 진출 사례, 프로젝트 규모 및 단가, 우리기업의 발전부문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력분야가 진출이 기타 인프라사업에 비해 유망한 분야임을 지적하며

- 동 행사를 계기로 많은 국내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하였음

- 그리고, 정부가 한-인도 경협활성화를 위해 원전분야 협력의 본격적 추진, CEPA 업그레이드, 투자촉진협의회 개최, IT분야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등을 금년중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음

붙임 : 행사개요 1부. 끝.

『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』 행사 개요

□ 행사명 :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

□ 시기·장소 : 2012년 2월3일(금) /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(2F)

□ 참가자 : 인도 전력인프라 관심기업인 200명

□ 추진목적 : 우리 기업의 인도 전력프로젝트 및 기자재시장 진출 지원

※ 인도 인프라시장의 절반이상이 전력분야이며,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임

□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발 표 자
13:30-13:35 (5분)	개회사	- 배창헌 정보컨설팅본부장
13:35-13:40 (5분)	축사	- 김창규 지경부 전략시장협력관
13:50-14:30 (40분)	인도 발전시장 진출방안	- NTPC(인도화력발전공사)
14:30-15:10 (40분)	인도 송배전시장 진출방안	- PowerGrid(인도송전공사)
15:40-16:20 (40분)	인도 전력기자재 진출방안	- BHEL(인도 기자재조달공사)
16:20-17:00 (40분)	인도 전력인프라시장 진출사례 및 전략	- 뉴델리무역관 김상환 차장
17:00-17:40 (40분)	Q&A	- 전체연사 Q&A

※ Q&A Session(40분)을 별도 배정하여 참가자와의 네트워크 강화